

## “서울, 1964년 겨울”의 영어 번역물 분석: 텍스트 배경, 인물 성격, 언어 표현을 중심으로

박 옥 수  
(영남대)

### 1. 들어가며

번역물의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번역물 분석 작업에서 기본적인, 필수적인 연구 작업이다. 번역 평가(assessment)는 초기의 해석학적 방식에서 언어학적 접근법으로 전개되었다. 언어학적 영역에서의 번역 평가는 의미, 통사, 음운의 분야를 분석하면서 원문과의 등가를 논의하였다. 이후 번역평가는 화용론적 등가(pragmatic equivalence)를 거론하면서 텍스트의 상황적 문맥을 고려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화’라는 관점이 개입됨으로써 담화 범위를 더욱 확장하게 되었다.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 기술적 접근 방식, 탈식민주의 관점 등의 방식은 번역이 ‘문화적 전이’라는 인식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번역 평가에서는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언어외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번역 평가는 규범적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간주관적인(間主觀的)

성격을 갖고 있다. 번역 평가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실제 원문과 번역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이후 번역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도출해내야 한다. 따라서 개별 번역물 연구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번역 평가의 모델이 정립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1964년 겨울」의 영문 번역물 두 편을 대상으로 한 번역 평가로서 평가 방식은 ‘텍스트 중심’<sup>1)</sup>이며, 서술 방식은 ‘기술적 방식’과 ‘비평적 방식’을 함께 적용했다. 가능한 한 ‘비평적 서술 방식’을 최소화하고, 드러난 현상을 기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전개 방식은 먼저 원작 장르의 특성과 자료 분석 방법을 연계해서 설명하였다. 자료는 배경지식, 인물의 성격, 고유의 언어 표현의 범주로 구분한 다음 분석의 배경 이론 및 당위성을 살펴본 후에 구체적인 분류 단위를 언급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텍스트의 배경 요소’의 분석에서는 원문에 드러나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분석했으며, ‘인물의 성격’ 분석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규명하는 지문과 발화를, ‘원문 고유의 표현’에서는 원천 언어의 특성 때문에 목표 언어로 번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분석했다. 그리고 대상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의 번역물에 적용 가능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비교 대상인 번역물 중 TT1(Target Text 1)은 *Winter, 1964, Seoul*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 출판되었고, 번역자는 정중화이다. TT2는 *Seoul: Winter 1964*라는 제목으로 1990년에 출판되었으며 번역자는 피터 리(Peter H. Lee)이다. 이 논문의 비평방식은 ‘개별적 비평’<sup>2)</sup>이며, 두 번역본은 출판 상으로 5년의 시차를 보여준다.

두 번역가는 한국 문학 번역의 1세대로서 대학 교수 겸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시와 소설을 영어권 국가에 소개하는데 기여하였다. 정중화는 고려대학교 영문학 교수로 재임하였으며, 주로 영연방 국가에 한국 문학을 적

- 
- 1) ‘텍스트 중심’의 비평 방식은 내적, 외적 요소를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텍스트 전체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번역 현상을 분석하는 방식이다(전현주 2008: 226).
  - 2) ‘개별적 비평’이란 ST:TT의 비평방식이 1:1 혹은 1:다수로 하나의 원천 텍스트에 대해서 단수 또는 복수의 번역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비평 방식이다.

극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1978년과 1980년, 한국 소설을 *Modern Far Eastern Stories*에 번역 소개하였고, 한영 교류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영제국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피터 리는 콜롬비아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LA)에서 한국학과 한국어를 강의했으며, 미국에서 뛰어난 한국 문학 번역가로 알려져 있다. *Anthology of Korean Poetry: From the Earliest Era to the Present, Korean Literature: Topics and Themes* 등 20권이 넘는 학술서와 번역서를 출판하면서 미국 대학 내에서 한국 문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국내에서는 대산 문화재단의 번역상을 수상하였다.

## 2. 장르의 특징과 자료 분석의 연계성

기존 한영 문학번역의 연구 사례는 영한 문학 번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편이다. 기존 논문의 한영 문학 번역 연구를 살펴보면 우형숙(2004)은 한국 시의 영역 사례를 통해서 언어의 양상을 연구하였다. 박향선(2002)은 한국시의 영역에 드러난 오류를 원문 의도의 왜곡 여부 및 번역물의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박진임(2004)은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을 문화관련 어휘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했다. 단편 소설을 연구 자료로 분석한 김세정(2003)은 「무녀도」, 「엄마의 말뚝」을 대상으로 텍스트의 정보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번역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영 문학번역 연구의 자료 분석 대상은 주로 시와 단편 소설이었다. 내용면으로는 우형숙, 박향선, 박진임의 연구가 어휘의 표현 문제를 다룬 데 비해서 김세정은 텍스트 단위의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특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앞서 언급한 세 분야로 분류해서 분석한다. 이 분류 요소를 언급하기 전에 원작이 속해 있는 텍스트의 유형, 즉 단편소설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천 언어권에서 통용되는 장르의 특성은 문학 번역에서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을 구속하기 때문이다. 단편소설의 특징은 압축된 구성으로 인생의 한 단면을 섬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통일된 효과를 구축하는 것이다. 장편소설이 인생의 총체적인 면모를 묘사한다면, 단편소설은 인생의 한 단면을 제시한다. 한국에서는 단편소설이라는 장르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정착한 편이다. 작가의 등

용문이 장편 보다는 단편소설 위주로 열려있기 때문이었다. 작품의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의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편소설에서는 작가의 표현 기교나 작품의 구성 능력 등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단편 소설은 작가로서의 역량을 가늠하는데 적절한 장르였을 것이다.

분석 분야를 ‘텍스트의 배경 요소’와 ‘인물의 성격’, ‘원문 고유의 표현’으로 분류한 이유는 이런 원작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원작에서 ‘서울’과 ‘1964년’이라는 지역과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전개되는 세 명의 인물이 이 원작의 주제를 형성하는 주체가 된다. 이 특정 공간과 시간 속에서 형성된 세 인물 사이에 펼쳐지는 담화는 한국 고유의 표현 양식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단편소설에서 ‘텍스트의 배경’은 주제를 표현하는 도구이다. 원작의 배경이 특유의 문화 현상들을 이끌어내는 주요 요인이다. 이 작품에서 ‘서울’과 ‘1964년 겨울’이라는 공간적, 시간적 배경은 이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이 연구에서 분류한 ‘텍스트의 배경’은 지역과 시대를 함축하는 표현, 그리고 담화에서 거론되는 사회 문화적 대상을 모두 포함한다.

번역물 평가의 해석과 규범의 틀은 사회, 문화적 상황과 그 번역물이 통용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번역물에서 드러나는 문화 표현과 텍스트의 현상은 결국 번역물이 통용되는 시대와 그 시기의 문화를 보여준다. (박옥수 2008: 163)

배경 요소를 구성하는 원문의 상황은 번역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번역은 두 단계의 소통 단계를 거친다. 번역자는 원문을 읽고, 원문과 소통한 다음 번역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번역물의 독자와 소통한다. 따라서 번역자가 원저자의 의도와 텍스트에 담겨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번역물은 독자에게 원문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게 된다. 실제로 특정한 텍스트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혹은 발화의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원문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것이 번역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은 ‘화용론(話用論)’<sup>3)</sup>과 관련을 갖는다.

3) 화용론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언어 사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화자의 의도와 발화의 의미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작가는 인물을 묘사할 때 지문과 대사를 통해 기호론적 기능을 실현한다. 특정 계층의 인물이 보여주는 담화 방식으로 인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지문과 세 등장인물의 언어가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인물의 성격’ 분석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와 인물의 정체성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지문이 등장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면, 대사는 등장인물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감’과 ‘안’이 주고받는 비서사적인 대사는 그들의 의식세계를 반영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대사가 보여 주는 양식을 번역물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번역자에게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줄리안 하우스(Juliane House)는 작가와 독자의 교감,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사이의 정서적 관계나 신분 관계가 번역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연구했다. 하우스는 마이클 할리데이(Michael Halliday)의 체계적, 기능적 이론에 근거해서 번역 평가의 소위 기능적-실용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 이론에서 하우스는 할리데이의 세 개념, ‘장(場, Field)’, ‘관계(Tenor)’, ‘매체(Mode)’를 적용한다(2001: 137-39). 하우스의 이론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담화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담화에서의 ‘대인적 기능’, 즉 담화 ‘관계’는 독자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관련성을 가진다. 이 기능의 담당자는 화자로서 화자는 소설세계에서 그가 인식하는 내용을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 전달 방식이야말로 텍스트의 특징을 규명하고, 독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번역물에서 언어 사용역의 일관성이다. 사람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발화에 자신의 사회적 계급이나 교육 수준 등을 반영하게 된다. 압축된 구조를 보여 주는 단편 소설의 경우 작가는 더욱 등장인물의 발화 내용, 형식 등을 고려해서 작품을 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 역시 원문에 드러난 언어 사용역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경우 번역자는 개별 문장보다는 인물의 전체적인 어조를 염두에 두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번역자가 원작자의 의도와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즉 언어 체계에서 생성된 의미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전달하고, 조작하는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다(Baker 1992: 217).

원문 고유의 표현에 대한 분석에서는 원천 사회가 갖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번역문 독자들과의 소통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원문과 번역문 사이의 등가 관계를 고찰했다. 단편 소설의 작가는 ‘효과의 단일성(the unity of effect)’을 의도하기 위해 독자들과의 교감이 필요하고, 원천 언어 고유의 표현을 통해서 자신과 같은 언어권의 독들과 소통한다. 문체나 비유적 묘사 등에서도 단편소설은 장편보다는 더 압축해서 표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에드가 알렌 포우(Edgar Allan Poe)는 ‘효과의 단일성’이 단편소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정의한다. 한 편의 단편소설은 작가가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간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작가가 어느 부분에서 ‘효과의 단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집중하게 된다. 단편소설에서 드러난 특유의 언어 표현 역시 ‘효과의 단일성’과 연계성을 갖는다.

요약하면 ‘텍스트의 배경 요소’는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장소와 시간이 표현하는 특유의 문화 현상을 담고 있으며, ‘인물의 성격’에서는 세 등장인물의 담화 특징이 그들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고유의 장소와 시기가 바로 특유의 언어적 표현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어 각 분류 단위 별로 자료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각 분류 단위의 서술 및 자료 분석

#### 3.1. 텍스트의 배경요소

텍스트 사이의 의사소통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전제(presupposition)’를 바탕으로 한다. ‘전제’란 “발신자가 추측하는 수신자의 언어적 혹은 언어외적 지식의 정도 또는 발신자의 메시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Munday 2001: 98)이다. 화용론적 전제는 이를 하나의 논리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 문맥에서 한 문장이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본다(Sellars 1954). 실제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배경 요소는 저자가 독자와 공유하는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하는 담화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번역자와 번역

문 독자는 서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자는 독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음의 분석 자료들을 통해서 번역자들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텍스트의 배경 요소’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고유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 표현이다. 술이나 음식의 명칭, 음식점, 가게, 한국 고유의 이름, 그리고 한국의 생활 방식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우선 원문의 배경이 되는 ‘서울’(ST1)의 번역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두 번역문이 Seoul 로만 옮겨놓았다. 그러나 번역물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을 The capital city, Seoul 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라는 표현을 첨가함으로써 번역물 독자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ST2: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 --- *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을 팔고 있고,

TT1: ... *the street stalls which appeared after dark and sold fried beancurd or fish-cakes on small sticks, roast sparrows and three kinds of drink.*

TT2: ... *those wine shops that appeared on the streets at nightfall, those stalls into which one stepped off a freezing, wind-swept street by pushing aside a flapping curtain. ....served up Japanese hotchpotch, roasted sparrow, and three kinds of wine.*

‘선술집’은 실제로 포장마차(covered cart bar, snack cart, food stall)를 의미한다. TT2의 wine shops 라는 표현은 자국화의 표현이며, 자국화의 전략은 ‘세 가지 종류의 술’을 three kinds of wine으로 번역한 데서도 드러난다. 여기서 ‘세 가지 종류의 술’은 ‘소주, 청주, 막걸리’일 것이다. 그러나 서양 독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three popular Korean drinks처럼 구체적 의미로 표현하는 것도 좋다. ‘오뎅’의 표현을 TT1은 실제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T2는 Japanese hotchpotch (일본식 잡탕찌개)로 표현함으로써 상위어로 번역했다.

ST3: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 번 걸려 본 적이 있고,  
 TT1: I enlisted in the army where I at one point had gonorrhoea,  
 TT2:...so had enlisted in the army, where I had caught gonorrhoea once.

두 번역문이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아마도 이 번역문의 독자들은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걸린 이유’를 궁금해 할 지도 모른다. 번역자로서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첨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As is the case with a few Korean soldiers 같은 내용을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ST4: 내가 만일 라디오의 박사 게임 같은 데에 나가게 돼서  
 TT1: In fact I had prepared the story for a radio panel discussion.  
 TT2: I should ever get on a radio quiz show...

‘재치문답’은 1961년에 시작된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재치박사’로 불리는 남녀 패널들이 나와 퀴즈, 놀이, 재치 경쟁 등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는 공개 방송이었다. 그런데 a radio panel discussion 이나 a radio quiz show의 번역어 둘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표현은 번역자들이 자국화 전략을 구사했다. a radio show where various panel members compete with each other in quiz, play, and wit 라고 설명하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ST5: 을지로 3가에 있는 간판 없는 한 술집에는 미자라는 이름을 가진 셋  
 시가 다섯 명 있는데 그 집에 들어온 순서대로 큰 미자, 둘째 미자, 셋째 미자, 넷째 미자, 막내 미자라고들 합니다.  
 TT1: In an inn without a sign in Ulchiro Third Street there were five girls whose names were Mija, and they called themselves the First Mija, the second Mija, the third Mija, the Fourth Mija, and the last Mija, in the order of their arrival at the place.  
 TT2: At a certain tavern on ūlchiro Third Street there are five girls named Mija, and they're known by the order in which they came to stay there - Big Mija, Second Mija, Third Mija, Fourth Mija, and Last Mija.

‘미자’라는 이름은 60년대의 여성 이름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에 속했다.

이 상징적 이름을 원문의 독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번역문의 독자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번역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Mija 라는 번역어 뒤에 one of the most common names among Korean women's 와 같은 표현이 필요하다.

ST6: 그 여자는 다음날 아침, 일수로 물건을 파는 여자가 왔을 때 내게 팬티 하나를 사주었습니다.

TT1: The next morning the girl bought me a pair of pants from a woman who sold goods *on daily credit*.

TT2: ... and the next morning she bought me a pair of shorts from a woman who came around selling things *on credit*.

이 소설이 출판되었던 시절에는 돈을 빌려서 높은 이자를 붙여서 원금을 매일매일 상환하거나, 물건을 사고 이자를 더해서 매일 얼마씩 지불하는 ‘일수’가 흔한 시기였다. TT2의 번역은 서양 독자들의 가독성을 위해서 ‘일수’라는 표현 대신 ‘외상으로’라고 번역했다. 반면에 TT1의 번역은 *on daily credit*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원문의 상황을 반영했다.

ST7: 그런데 그 여자가 저금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되들이 빈 술병에는 돈이 백십 원 들어 있었습니다.

TT1: She keeps her money in *an empty rice beer bottle*, and there are *a hundred and ten won* in it.

TT2: By the way, there was *one hundred and ten w n* in *the half-gallon wine bottle* she uses for a bank.

‘한 되들이 빈 술병’의 번역에서 TT1과 TT2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TT1은 의미 전달 방식을, TT2는 자국화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TT1의 경우 서양 독자들은 저금통으로 사용하는 술병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할 것이다. 반면에 TT2는 ‘한 되’가 약 1.8리터이기 때문에 서양 단위인 ‘반 갤런’ 정도로 표시해서 서양 독자들이 병의 크기를 추측할 수 있게 했다. 화폐 단위의 경우 두 번역문이 ‘백십 원’을 원문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 원문이 출판된 이후 무려 4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백십 원’의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다. 따라서 원

문 그대로의 번역은 서양 독자들에게 그저 돈의 단위를 전달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런 경우 따로 주해로 돈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것도 독자의 이해를 돕는 방법이다.

ST8: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TT1: *The neon sign for soju blinked as busily as before...*

TT2: *...the liquor advertisement was flashing as relentlessly as before...*

TT1은 원문의 의인법을 그대로 살려서 *busily*, *lazily* 의 표현을 사용했다. ‘소주’의 번역에서 TT1은 *soju*를 원문 그대로 옮겨 놓았고, TT2는 *the liquor*라는 표현으로 ‘상위어’로 번역했다. 후자의 경우는 번역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국화 전략이다.

ST9: 방금 우리가 나온 중국집 곁에 양품점의 쇼윈도가 있었다.

TT1: *There was a foreign goods shop with the show-window facing the street, right next to the Chinese restaurant we had just come out of.*

TT2: *Beside the Chinese restaurant we had just left was the show window of a shop selling imported goods.*

‘양품’의 의미는 실제로 ‘서양식으로 만든 물품, 특히 의류나 장신구 따위의 잡화(雜貨)’를 의미한다. 따라서 ‘양품점’의 번역으로 *boutique*나 *a shop dealing in Western-style apparel* 이 적합하다. *a foreign goods shop*이나 *a shop selling imported goods*은 단어 대 단어의 번역으로 실제 원문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ST10: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 버린 극장에서 나올 때 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TT1: *We all felt awkward as soon as we got into the hotel, the awkward feeling one has after coming out of a theatre and not knowing what to do next.*

TT2: *When we entered the hotel we experienced that same awkward feeling one gets when he leaves a theater after the show is over and doesn't know what to do next.*

두 번역문이 원문의 의미와 상황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극장에서 나올 때의 어색하고 거북한 느낌’은 저자의 주관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원천 문화에서만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일 것이다. 서양 독자들에게도 이런 감정이 제대로 이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TT1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저 극장에서 나올 때의 당황한 느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그리고 TT2에서는 이 부분을 *after the show is over* 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는 실제 원문이 의도한 ‘영화가 끝난 후’의 의미와는 다르다.

ST11: 아닙니다. 종삼으로 가자는 얘기였습니다.

TT1: No, I was only suggesting that we go to *the brothel district of Chongno Third Street*.

TT2: Oh, no. I was suggesting that we go see the girls on *Chongno Third Street*.

이 원문이 통용될 당시 ‘종로 3가’는 서울의 대표적인 흥등가였다. TT1에서는 실제로 당시 ‘종로 3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brothel district*라는 표현을 첨가했다. ‘의미 첨가’의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반면에 TT2는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을 함으로써 번역문 독자들에게 ‘종로 3가’의 상황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ST12: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TT1: (번역문 없음)

TT2: I wrote a false name, address, age, and occupation on the register and drank the water the bellboy had left, then pulled the covers over my self.

‘숙박계’는 ‘여관이나 호텔 따위에서 숙박인의 성명, 주소, 행선지 따위를 적은 서류’로 한국 사회에서 숙박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사환이 직접 손님이 묵을 방에 들고 들어와서 기재하는 것인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TT1에서 이 부분의 번역이 없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 번역자의 실수로 누락되

었거나, 그게 아니라면 목표 문화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숙박계에 대해 번역물 독자의 부담을 고려해서 번역자가 번역을 생략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TT2의 경우 ‘숙박계’를 register로 번역함으로써 자국화 전략을 보여준다.

ST13: 사관학교 시험에서 미역국을 먹고 나서도 얼마 동안, 나는 나처럼 대학 입학시험에 실패한 친구 하나와 미아리에서 하숙하고 있었습니다.

TT1: After I failed at the Military Academy, I *shared a room* in Miari with a fellow who had failed at university.

TT2: After I failed the examination for the Military Academy, I stayed for a while in a *rooming house* in Miari with a friend who had failed his college entrance exams.

‘하숙하다’는 live in a boarding house이나 to be boarded 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두 번역이 ‘하숙’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

ST14: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TT1: We are only twenty-four,

TT2: We're just twenty-five,

나이의 번역을 TT1과 TT2는 각각 달리 표현했다. TT1은 서양식 나이대로 표기했고, TT2는 원문 그대로 즉 한국식 나이 표현 방식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TT1은 자국화 방식, TT2는 이국화 방식을 적용하였다.

### 3.2. 인물의 성격

이 작품은 교훈적이고, 인정주의적이었던 문학이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작가는 등장인물 ‘김’을 내세워서 일인칭 묘사를 하고 있다. 그의 지문(地文)은 진지한 것에 대한 저항을 드러내는데, 이는 그 시절 문학의 주류였던 엄숙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작가는 자신의 이런 의도를 등장인물의 속어 대사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의 ‘안’과 ‘김’의 대화는 소통이 이어지는 대화가 아니다. 자신의 진심은 표출하지 않은 채 사소한 일상을 무의미하게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안’과 ‘김’은 철저한

개인주의로 무장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작품 속에 등장한 외판원 사내의 대사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서사를 담고 있다. 이처럼 작품 속의 개인 언어는 스스로 작품의 기호론적 기능을 수행한다.

등장인물의 발화에서 기능적 특성이 반복되는 것은 그 인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베이실 헤이탐과 이안 메이슨(Basil Hatim & Ian Mason 1997:10)은 ‘이방인’의 영어 번역 분석에서 원문의 능동형 문장이 수동형으로 번역되어서 주인공 피르소의 성격이 원문보다 ‘소극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번역자가 피르소의 소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런 변이를 채택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는 원문에 드러난 주인공의 성격을 통사론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처럼 원문에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 언어의 특징을 번역물에서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 ‘안’과 ‘김’이 사용하는 언어는 불안과 소외감에 지쳐있는 두 청년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낸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를 번역물에 그대로 표현하려면 원작이 보여주는 언어적 특징을 번역물에도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번역자는 발화가 갖는 기능적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헤이탐과 메이슨은 원본의 성격을 번역 전략과 연결했다. 그들은 텍스트의 요소가 역동적일 경우 직역의 접근 방식이 요구되며, 안정적일 경우 번역자는 더욱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런 경우 직역의 접근 방식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방법은 단어나 구, 절 등의 미시적 단위보다는 텍스트 전체의 단위를 대상으로 한 지문과 대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

이 작품의 경우 사건의 전개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등장인물들은 쉴 새 없이 공간 이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파국의 결말은 대단히 역동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25세의 두 청년과 35세로 추정되는 사내는 각각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작중의 주요인물인 ‘김’과 ‘안’과 월부책 장수 사내는 실패한 개인 혹은 소외된 자아의 시대적 전형성을 보여주는 인물”(송준호 2006:195)이다. ‘안’과 ‘김’의 언어 표현은 서사적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며, 그들의 정서적 불안감, 절망감을 드러낸다. 그들을 둘러싼 암울한 현실과 전망 없는 미래가 두 청년의 대화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무의미한 언어들로 이어지는 두 청년의 대화는 그들이 인간과 세계에 대해 느끼고 있는 거리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외

판원 사내의 이야기는 자신과 아내의 죽음을 알리는 설명적 서사로 이어진다. 표현 방식의 차이가 두 청년과 사내의 간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일인칭 서술로 표현되는 지문 역시 ‘김’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독백처럼 전개되고 있다. 작가는 지문에서도 속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들 세 사람의 성격이 번역문에서 제대로 반영되어 번역물의 독자들이 원문의 저자와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번역자에겐 주요 과제일 것이다. 다음의 자료들을 통해서 원작 특유의 표현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ST15: 쓰리꾼들처럼

TT1: Like two pickpockets

TT2: Like pickpockets

‘쓰리꾼’은 ‘소매치기’의 속어이다. 따라서 pickpocket보다는 역시 속어인 dipper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ST16: 나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듯하기도 했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TT1: I thought I could understand what he was talking about, though only in a vague way.

TT2: I felt I could understand what he was talking about, but only vaguely.

원문에서 ‘안’과 ‘김’은 실제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김’은 실제로 ‘안’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역은 ‘모호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I was not sure if I understood what he was talking about or not 의 표현이 원문이 의도하는 의미에 더 가깝다.

ST17: 하하하하 하고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TT1: He laughed heartily.

TT2: Ahn laughed loudly.

이 부분은 화자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두 번역문에서 의성어 ‘하하하하’의 표현을 생략한 대신 *heartily, loudly* 라는 수식어로 표현했다. 전자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후자는 웃음의 강도를 표현한 어휘이다. 의성어 표현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번역자에게 난해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ST18: 나는 그때 마침 옆방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자의 불그레한 신음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TT1: But I was more interested in some ecstatic cries come from a woman in the next room.

TT2: At that moment, I heard a woman's warm moans coming from the next room.

실제로 TT1은 원문보다 화자의 태도에 더욱 적극성을 부여한다. 원문에는 ‘듣고만 있었던’ 상태였는데, 번역문에는 ‘더 관심이 있었다(*was more interested in*)’로 번역했다. TT2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번역자는 원문의 ‘불그레한’의 표현을 *warm*으로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을 했다. TT1이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서 번역문의 내용을 첨가했다면, TT2는 원문을 단어 대 단어로 옮겨 놓았다. TT2보다는 TT1의 번역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strange noises*라고 번역하면 의미 전달과 충실성을 둘 다 반영할 수가 있을 것이다.

위의 자료 이외에도 이 작품의 호칭으로 등장하는 ‘안형’ ‘김형’ 등의 번역 역시 인간관계적 위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형’은 나이가 비슷한 동료나 아랫사람의 성 뒤에 붙여 상대방을 조금 높여 이르는 말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처음 만난 또래의 남성들이 상대방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으로 이들 번역문에서 일관적으로 드러난 Mr.와는 다른 뉘앙스를 준다. 이런 경우 문맥에 따라서 Mr.의 호칭과 *Hey Kim, Hey Ahn* 등의 표현을 함께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3. 원문 고유의 언어 표현

원문 고유의 표현은 언어적, 문화적 함의를 담고 있다. 원작의 이런 표현들은 원작의 작가와 독자 사이에 언어적, 문화적 지식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담보

로 한다. 그러나 번역물 독자와 원문의 저자는 이런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번역자는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면서도 원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살려내기 위해 고심한다. 그 과정에서 번역자는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번역물 독자와의 소통 사이에서 한 지점을 선택하게 된다.

카타리나 라이스(Katharina Reiss)와 한스 페어메어(Hans J. Vermeer)는 원문의 미학과 독자와의 소통에 대한 기저 이론으로 ‘충실성 규칙(fidelity rule)’과 ‘일관성의 법칙(coherence rule)’을 언급한다. ‘충실성의 규칙’은 번역자가 수용한 원문의 정보와 번역자가 그 정보를 해석한 것, 그리고 번역물 독자를 위해서 기호화한 정보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unday 2001: 79-80). 문화적 문제가 제기될 때 번역자는 독자와의 ‘상황적 일관성’에 중점을 두게 되고, 그 결과 원문에의 충실성을 경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문학 번역의 경우 원문에의 충실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일반론 때문이다. 그러나 번역물과 독자 사이의 소통은 텍스트의 상황적 일관성이 지켜질 때 가능해진다. ‘일관성의 법칙’은 번역물이 번역물 독자의 상황과 일관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Munday 2001: 79).

소수의 언어에서 다수의 언어로 번역되는 경우 문화 간의 소통은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영한 문학번역의 경우,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변이가 한영 문학번역 보다는 약하다. 번역물의 독자들이 이미 서구권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번역물을 통해서 번역자가 다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독자와 어떻게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ST19: 신기한 건 버스칸 속에서 1 센티미터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 자기 곁에 이쁜 아가씨가 서있다는 사실입니다.

TT1: And the greatest novelty is a pretty girl standing right next to you in the bus.

TT2: And the most marvelous thing is finding a pretty girl beside you, not a centimeter away, on a crowded bus.

‘1 센티미터도 안 되는 간격을 두고’를 TT1은 right next to you로 TT2는 beside you, not a centimeter away로 번역했다. TT1은 의미 번역을, TT2는 단

어 대 단어 번역을 하고 있다.

ST20: 그런 짓을 하고 나서는 뒷맛이 좋지 않더군요.

TT1: If you don't, you have an unpleasant taste in your mouth later.

TT2: Manufacturing things like that leaves an unpleasant aftertaste.

‘그런 짓(화장실의 손잡이에 손톱자국을 낸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마음이 꺼림직하다’는 의미인데, 두 번역문이 원문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이 문맥상 내용을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번역자가 개입한다면, *If I did things like making a nail mark underneath the door handle of the toilet ...*으로 풀어서 번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ST21: 술좌석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는 의외로 재미있게 놀게 되는 것을 몇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이렇게 힘 없는 목소리로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다. 즐거움이 넘치고 넘친다는 얼굴로 요란스럽게 끼어들어야만 일이 되는 것이었다.

TT1: I had met strangers drinking several times and found that I enjoyed being with them; all it took was a facade of boisterous enjoyment; they were there full of vigour and adventurous spirits. But I had never met anyone with a dying voice.

TT2: I knew from experience that one could have an interesting and enjoyable time with someone he met unexpectedly over a glass of wine.

These strangers virtually never came on with such weak voices, though. They were boisterous and overflowing with joy.

TT1의 경우 의미번역을 하고 있다.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원문에 없는 표현(adventurous spirits)을 삽입했다. 그리고 번역문의 순서도 원문과는 다소 다르게 배열했다. TT1은 의미 전달을 위해 원문의 형식을 지키지 않았고, 내용도 첨가했다. 반면에 TT2의 경우는 원문을 그대로 옮긴 단어 대 단어의 번역에 가깝다. 번역문의 순서 역시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ST22: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TT1: Because she couldn't have any children we were closer and happier.

TT2: Since she couldn't have children, we had all our time to ourselves.

TT1은 원문과 다소 다른 뉘앙스를 준다.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를 ‘우린 더 가깝고, 더 행복했다(we were closer and happier)’로 번역했다. 반면에 TT2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고도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다. 이 번역문에서는 TT2의 번역이 원문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ST23: 악센트 찍는 문제는 모두 틀려 버렸단 말야, 악센트 말야.

TT1: Everybody made mistakes in accentuation, in accentuation.

TT2: You put the accents in the wrong places! The accents!

원문에는 주어는 없다. 주어의 생략은 원천 언어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문장에서는 실제로 원문의 주어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TT1은 주어를 Everybody로 해석했고, TT2는 You로 해석했다.

ST24: 우리는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하나씩 들었고,

TT1: We picked striped ties.....

TT2: We picked out ties with motley designs.....

TT1의 번역문 striped tie는 ‘줄무늬’ 넥타이로 원문과는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 with motley designs로 표현한 TT2가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다.

ST25: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TT1: I have just been to his room and found him dead.

TT2: I went his room just now, and he was dead.

이 부분에서 ‘역시’는 이 문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역시’는 풀어서 설명하면 ‘생각했던 대로’의 뜻으로 ‘안’이 생각했던 대로 그 사내가 죽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표현은 ‘안’이 그의 자살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 상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두 번역문에서는 ‘역시’의 의미가 생략되어 있다. 번역문에서 As might have been

expected를 첨가해준다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죽어버렸습니다’ 부분의 번역에서 TT1은 found him dead, TT2는 he was dead로 해석하고 있다.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부분의 의미는 ‘그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이다. 그러므로 단어 대 단어의 번역을 한 TT2보다는 TT1의 번역이 더 적절하다.

#### 4. 분석 결과 및 논의

이상의 자료 분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TT1과 TT2의 번역 방식 비교

No. of Data	TT1	TT2
텍스트의 배경 요소		
1	직역	직역
2	직역	자국화 전략, 상위어로 번역
3	직역	직역
4	의미전달 방식	자국화
5	직역	직역
6	직역	가독성 위주의 자국화 전략
7	의미전달 방식	자국화
8	직역	자국화 전략, 상위어로 번역
9	직역	직역
10	직역	직역
11	의미전달 방식	직역
12	생략	직역
13	상위어로 번역	상위어로 번역
14	자국화 전략	이국화 전략
인물의 성격		
15	원문의 속어 전달 실패	원문의 속어 전달 실패
16	원문의 의미 전달 실패	원문의 의미 전달 실패
17	원문의 의성어 전달 생략	원문의 의성어 전략 생략
18	의미 첨가	직역
원문 고유의 언어 표현		

19	일반화의 전략	직역
20	직역	직역
21	의미 전달 방식	직역
22	의미 전달 방식	직역
23	생략된 주어 삽입	생략된 주어 삽입
24	일반화의 전략	직역
25	의미 전달 방식	직역

도표를 보면 분석 단위에 따라서 TT1과 TT2의 번역 전략이 각각 특징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 요소를 표현하는 부분의 번역에서 TT1은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서도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번역문의 내용을 첨가하는 방식을 적용한 반면 TT2는 자국화 전략이나 상위어로 번역하려는 경향을 보여 준다. 이는 TT2가 원문에 충실하려는 전략 보다는 번역문 독자의 가독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물의 성격 분석에서는 두 번역문이 원문의 속어 표현을 일상적인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원작에서 드러난 인물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원문 고유의 언어 표현에서는 두 번역문이 명확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TT1이 의미 전달 방식을 위주로 하고 있다면 TT2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는 방식을 사용한다. 고유의 언어 표현에서 TT1은 번역물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한 의역을 위주로 하였고, 반면에 TT2는 주로 직역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 5. TT1과 TT2의 번역 전략

위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TT1과 TT2의 번역 방식을 요약해 보면, ‘텍스트의 배경 요소’ 분석에서는 TT1이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한 부분이 일부 있으며, TT2는 의미 전달을 위해 자국화와 상위어로의 번역을 하였다. ‘인물의 성격’ 분석에서는 두 가지 실례가 속어 표현을 일상 언어로 전달함으로써 인물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고유의 언어 표현’ 분석에서 TT1은 일반 독자들을 의식해서 가독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TT2는 가능한 한 원문의 손실을 최소화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작품의 미학적인 측면을 고려한 번

역이다.

번역자는 원천 텍스트와 번역물 독자 사이에서 상호 작용을 하는 정보의 불균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제한된 범위의 정보만을 갖고 있는 번역물 독자들을 대상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면 번역자가 개입할 여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 자료인 두 번역 텍스트 역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번역자가 개입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김’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나레이터인 동시에 대사의 주요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런 경우 작품의 전체적 어조가 ‘김’의 관점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번역물에서 전체적 어조를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원문의 대화와 지문은 격식어가 아닌 일상어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나레이터와 등장 인물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종종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 TT1의 번역자는 함축적 의미를 내용 첨가와 메시지 전달로 옮겨 놓았으며, TT2의 번역자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함축적 의미의 해석을 번역물 독자의 몫으로 남긴 것 같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번역문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문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대화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속어를 구사하는 젊은 층이라면 원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나이와 그들의 사회적 수준 등을 고려해서 그에 상응하는 번역어를 찾아야 한다. 실제로 이 논문의 자료인 두 번역물은 원문에 드러난 등장인물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두 번역물은 속어를 사용하는 ‘방황하는 젊은 등장인물’의 대화를 속어가 아닌 표준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인물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실패했다. 이처럼 인간관계적 어휘가 번역물에서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원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등장인물의 정체성과 번역물의 그것과의 사이에 일관성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문의 속어에 해당하는 표현이 목표 언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번역자는 차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좀 더 직접적이고, 거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단어 대 단어의 번역으로 원문의 의미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충실성의 단위가 문맥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작가는 어조를 통해서 작품의 분위기, 즉 유머나 진지함, 풍자 등을 전달한다. ‘서울, 1964년 겨울’이 보여주는 어조는 ‘저항’과 ‘신랄함’이다. 이런 어조는 작품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다. TT2의 간략한 어조와 번역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전략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조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TT1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설명적 표현은 독자에게 내용 전달을 성실하게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어조를 전달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TT1과 TT2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한국 고유의 언어를 번역한 방식에 있다. TT1의 경우에는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원문에 없는 부분을 삽입했다. 반면 TT2는 원문의 표현을 가능하다면 그대로 번역문에 옮겨놓았다. TT1의 번역자는 번역물 독자가 갖고 있는 정보의 한계를 의식한 듯하다. 반면에 TT2의 번역자는 독자가 원문의 문맥의 흐름에 집중해서 내용을 이해하기를 기대한 것 같다.

## 6. 한영 문학 번역을 위한 제언

### 6.1. 자국화와 상위어 번역

한영 문학번역의 경우처럼 소수의 언어가 다수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흔히 일반화의 현상이 드러난다. 문학 번역에서는 두 언어의 역학 관계를 ‘자국화’와 ‘이국화’의 관계로 관계로 설정한다<sup>4)</sup>. 로렌스 베누티(Lowrence Venuti 1995)에 의하면 ‘이국화’의 번역은 목표 문화의 가치로부터 자민족 일탈을 유도하는 압력을 가해서 원본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번역물의 독자를 원본의 문화로 보내는 번역 전략인데, 베누티는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폴 그라이스(H Paul Grice)의 격률이 유창한 번역을 하도록 조장하면서 ‘자국화’의 번역 전략을 지지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국화’의 번역 방식은 영어권의 텍스트가 소수의 언어로 번역될 경우를 지칭한 것으로 소수 언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상황에서는 선별적으

4) 번역물에 원천 언어권의 문화적 이질성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번역물 독자들을 원천 언어의 문화에 익숙하게 하는 번역 방식 있는데, 이는 실제로 “가능한 한 독자를 그대로 두고 원본의 저자를 독자에게 다가가게 하는”(Schleiermacher 1813/1992:41-2) 자국화의 전략이다. 이국화의 번역 전략은 “번역자는 가능한 한 원본의 저자를 그대로 두고, 번역물 독자를 그쪽으로 다가가게 하는”(ibid. 42) 방식이다.

로 적용되어야 한다. 유진 나이다(Nida, Eugene 1964)는 메시지가 수신자 채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개입이 없는 경우에는 메시지가 채널을 제대로 통과할 수 없는 과부하 상태가 되어서 수용자는 제대로 된 원문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소수 언어의 문화가 다수 언어의 문화에 소개되는 경우 후자의 독자들은 실제로 전자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좁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번역자는 자국화와 상위어 번역으로 과부하 상태가 된 정보를 정리한다.

한영 문학번역에서 서구 독자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자국화 전략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번역에서 ‘숙박계’를 register로, ‘종삼’의 번역을 the brothel district 로 옮긴 것은 적절한 방식이다.

문학번역에서 번역물 독자와의 소통을 위한 자국화 전략은 장점과 단점을 둘 다 갖고 있다. 자국화 전략의 장점은 번역물 독자들에게 원문이 주는 이질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원문의 고유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배경이 되는 장소와 시대,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주제를 향해 수렴하고 있다. 이 작품의 특성상 번역자는 배경 사회 특유의 사물, 언어 표현 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번역자는 원천 문화 특유의 장소와 시간 등이 엮어낸 ‘상황성’을 번역물에 살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위의 번역문에서 원문의 나이를 번역할 때 TT1과 TT2는 각각 다른 전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의 번역에서 TT1은 We are only twenty-four, TT2는 We're just twenty-five라고 옮겨 놓았다. TT1의 경우 실제로 한국의 나이를 서양식의 나이로 환산해서 원문의 25세를 24세로 표기했는데, 이처럼 산술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국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국화 전략은 원문 텍스트의 내용이 문맥 이해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

소통을 위한 또 다른 방식인 상위어로의 번역 역시 남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TT1의 경우 ‘알록달록한 넥타이’를 striped ties로 번역한 것은 오히려 원문의 의미를 일반화시킴으로써 섬세한 원문의 표현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TT2는 때로 문화적 어휘의 번역에서 상위어 번역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문의 ‘오뎅’을 Japanese hotchpotch로 번역한 것은 상위어 번역의 실례이다. 그러나 이런 번역 방식은 번역물 독자가 작품의 배경을 제대로 이

해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 6.2. 원문제의 충실성을 추구하는 방식

다음의 두 실례는 번역자들이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T1의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더욱 섬세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ST21의 번역에서 원문에는 없는 표현인 *adventurous spirits*를 삽입함으로써 원문의 의도를 한층 선명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ST25의 번역에서는 *found*를 넣음으로써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경우 번역문에서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는 전략은 오히려 원문제의 충실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TT2에서는 직역을 함으로써 원문의 양식을 섬세하게 표현한 번역문이 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어린애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은 몽땅 우리 두 사람의 것이었습니다.’의 경우, TT1의 *Because she couldn't have any children we were closer and happier*보다는 TT2의 번역문 *Since she couldn't have children, we had all our time to ourselves*가 더 원문의 양식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의 경우는 TT2가 단어 대 단어의 경직된 번역을 함으로써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원본에 대한 번역물 독자의 이해가 부족한 문화 고유어나 특정한 표현의 경우 번역자는 몇 가지 해결 방식을 생각하게 된다. 주해를 해결하거나,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특정 표현을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 아니면 번역물 독자에게 생경한 표현을 그대로 번역함으로써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그런 표현을 아예 번역하지 않는 방법인데, 이는 가장 안이한 방법으로 부적절하다.

문학 번역의 경우 주해를 넣는 방식은 번역물 독자들이 소설에 몰입하게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소설의 주요 기능이 정보의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해를 넣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는 번역자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원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는 방식은 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게 하는데 유용하다. 이 논문에서 대안 번

역으로 제시한 부분으로 ‘세 가지 종류의 술’을 three popular Korean drinks나 Mija라는 번역어 뒤에 one of the most common names among Korean women's 등을 첨가한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이다. 물론 이 경우 첨가는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표현을 그대로 번역해서 독자들이 문맥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런 짓을 하고 나서’의 번역에서 TT2가 manufacturing things like that이라고 번역한 것이나 ‘백십 원’의 번역을 별다른 설명없이 TT1이 a hundred and ten won으로 번역하고, TT2가 one hundred and ten wŏn라고 번역한 것이 그 실례이다. 이런 방식은 번역자가 개입하지 않고, 번역물 독자가 구체적 내용이나 돈의 가치 정도를 문맥에서 파악하게 하려는 것이다.

번역 현상을 밝히는데 수렴되는 두 가지 화두는 ‘미학’과 ‘소통’이다. ‘미학’과 ‘소통’이 균형을 보여줄 때 번역은 그 의도를 성취하게 된다. 그러나 소수 언어의 텍스트가 다수 언어의 텍스트로 번역되었을 때 번역자는 ‘미학’보다는 ‘소통’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한국 문학번역에서도 ‘소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자는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 단계로 원문의 언어적, 문화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작품을 통해서 서양 독자들이 한국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관심을 보인다면 번역물의 독자층을 확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통’의 의미는 원문에의 충실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 언어가 목표 언어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서구 독자들이 그 이동 과정을 의식하지 못할 만큼 자연스런 번역물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번역투의 느낌이 남아 있거나 경직된 표현을 갖고 있는 번역물은 원천 언어 특유의 문법, 문장 구조, 그리고 고유의 어휘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번역물 독자가 읽기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실제로 원문의 작가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이런 부담을 독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의 번역은 아닐 것이다.

결국 소수 언어를 다수 언어로 번역하는 문학 작품에서 직역과 의역의 공식은 없다. 원작은 한국 현대소설에서 이정표가 될 만큼 획기적인 양식을 보여준다.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진지함과 질서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 작가 특유의 감수성으로 전개되고 있다. 작품의 이런 특징이 소외, 부재, 죽음 같은 부정적인 어휘 사용이나 속어와 은어의 사용으로 구체성을 드러낸다. 이처럼 원작의 양식이 주제를 표현하는 도구가 될 경우 번역자는 우선 원작을 제대로 해석

할 줄 아는 안목을 갖춰야 한다. 번역자의 작품 해석 능력은 번역물의 소통에 중요한 열쇠가 된다. 문학 번역에서는 전달하는 내용 자체보다 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 7. 나가며

번역은 원본과 번역물, 번역자의 복합적인 정서 작용, 그리고 목표 문화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다. 언어, 문화, 그밖에 텍스트 자체의 문맥이나 저자의 문체 등의 문제는 번역자에게 항상 도전을 요구한다. 같은 원천 텍스트라도 번역자의 인지 능력, 관점, 상황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번역의 결과물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목표 텍스트의 외적 용인성을 점검하는 요소로서 ‘번역 전략’은 번역자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므로 언어적 틀 안에서만 번역물을 평가할 수는 없다. 번역 평가는 텍스트 자체의 진실과 번역자의 진실을 밝히는데 있다. 언어적 접근 방식은 번역 비평의 기본이지만 언어적 접근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번역 평가는 미시적 분석에 그치고 말 것이다. 실제로 번역 비평이 추구하는 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텍스트 전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는 번역자의 전략을 밝히는 문제로 귀결된다. 결국 바람직한 번역 평가의 방법은 원본의 맥락적 상황과 번역물의 연관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영 문학번역에서 객관적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적인 분석 사례가 다양하게 나와야 한다. 개별 번역물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한영 문학번역에서 발생하는 번역 현상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 참고문헌

- 김세정 (2003) 「텍스트의 정보성: 문학작품 속 어휘번역」, 『번역학 연구』4(2): 49-70.
- 박옥수 (2008) 「봄날의 메뉴(Springtime à la Carte)의 번역에 나타난 의미, 통

- 사, 텍스트의 기능 평가], 『번역학 연구』9(4): 143-67.
- 박진임 (2004) 「문학 번역과 문화 번역: 한국 문학 작품의 영어 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 연구』5(1): 97-112.
- 박향선 (2002) 「한국 영역시 오류 원인 분석: 2000년 전후 국내외 출간 한영대역시집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3(2): 63-80.
- 송준호 (2006)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29권, 현대문학이론학회: 193-210.
- 우형숙 (2004) 「한영시 번역을 위한 언어(連語)의 의미체계 고찰」, 『번역학 연구』5(2): 47-67.
- 전현주 (2008)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 연구』9(1): 215-58.
- Baker, Mona (1992)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atim, Basil & Ian Mason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House, Julian (2001) ‘How do We Know when a Translation is Good?’ (eds) Steiner, Erich & Yallop, Colin *Exploring Translation and Multilingual Text Production: Beyond Context*,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127-60.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Nida, Eugene (1964) *Towards a Science of Translation*, Leiden: E.J. Brill.
- Schleiermacher, Fredrich (1813/1992) ‘On the Different Methods of Translating’ (eds.) Biguener, John and Schulte, Rainer. *Theories of Translation*. Chicago & London: U. of Chicago P.: 36-54.
- Sellars, Wilfrid (1954) ‘Presupposing’ *The Philosophical Review* 63(2): 197-215.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분석대상 텍스트>

- 김승옥 (1995) 「서울, 1964년 겨울」, 『한국 대표 중단편소설 50』, 서울: 중앙일보사: 50-74.

- Kim, Sung-ok (1995) 'Winter, 1964, Seoul' (Trans.) Chung, Chong-wha. *Modern Korean Literature*, England: Kegan Paul International: 331-47.
- Kim Süngok (1990) 'Seoul: Winter 1964' (Trans.) Lee, Peter, H. *Modern Korean Literature: an Anthology*, Hawaii: U. of Hawaii P.: 216-32.

[Abstra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nglish Translations of “Seoul, the Winter of 1964”: With Emphasis on the Textual Background, the Interpersonal Factors and the Lexical Factors.**

Park, Ocksue  
(Yeungnam University)

The faithfulness to the source text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valued qualities in the realm of literary translation. In the case of English translation of Korean literature, however,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source text and the target language readers is a frequently raised issue. To communicate target language readers, the translator should pay attention to the special conditions in which transferring a minority language to a majority languag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draw implications from the two translations of “Seoul, the Winter of 1964”. This paper has examined the two English translations of "Seoul, the Winter of 1964" as a case study of examining what the translator of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should put priority on: faithfulness to the source text or communication with the target readers.

In terms of the methodology in the analysis, the data is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 the factors of textual background, the interpersonal factors, and the lexical factors. First, the analysis of the textual background factors is required for dealing with the situational context. The background factors in the source text presuppose the cultural setting that the author shares with the source language readers.

Interpersonal factors are another main issue dealing with the themes of a short story text. An author achieves a semiotic function through the dialogues of the characters. Kim in the work fulfills his role as the first-person narrator.

Ahn appears as a character showcasing the typical aspects of a youth in his own generation. The characters of Kim and Ahn are quite contrasted with that of a book salesperson in the story. The dialogues between the three characters clearly manifest their identities.

The language in a short story is highly condensed and seeks delicateness when compared with other genres including novels. A short story writer usually reproduces a text where some details are closely watched under the microscope and draws the readers' attention to produce the intended effect. In the process, the typical expression of the source text might be a tool to show readers of translation the intention of the author. Therefore, a success or a failure of a literary translation depends largely on whether or not expressions are transferred appropriately.

The basic discussions of the analysis in the three fields are as follows; the extent of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source language and the target language, the effectiveness in communicating with the target readers, and the way to achieve faithfulness to the source text.

▶ Key Words: Korean-English Literary Translation, Faithfulness, Communication, The Background of the ST, Interpersonal Factors, Indigenous Linguistic Expression, Domestication

박옥수

영남대학교 영문과 조교수

ocksue@hanmail.net

관심 분야: 문학번역 평가, 번역 이론

논문투고일: 2010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09일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10일